

지역 매 아리

고창청년벤처스, 상하농원서
농특산물 홍보 · 시식행사 펼쳐

고창청년벤처스(회장 염상훈)가 오는 28일까지 상하농원에서 개최되는 할로윈페스티벌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청년농업인이 직접 재배·가공한 상품 홍보와 함께 고창을 알리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고창청년벤처스는 젊은 청년 농업CEO로 이루어진 단체이며 회원들은 지난 13일부터 매주 주말마다 야생꽃차와 잡곡, 죽염 등의 건강식과 고창을 대표하는 제철과일의 시음과 시식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상하농원 할로윈파티에 참여하는 대상이 가족인 점을 감안하여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윷놀이와 젓가락 풍나르기 게임을 진행하여 상품을 증정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염상훈 회장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판촉 행사에서 벗어나 젊은 청년들이 관광객과 함께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고창군의 농특산물을 알리며 더 나아가 아름다운 자연과 유구한 역사문화유산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캠페인을 기획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 체험형 테마공원 상하농원의 할로윈 페스티벌은 오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일 너 무사워진 할로윈 유명 대소동'을 통해 이색 먹거리와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AI 특별방역대책 추진

철새 도래기를 앞두고 최근 전북 군산, 경기 파주, 충북 청주 등 전국 각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환원이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정읍시는 사전차단 방역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이날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AI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자체 방역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방역상황실에서는 가금(닭, 오리, 메추리 등)농가에 대한 예찰과 검사를 강화하고 철새도래지와 소화전, 인근 농가에 대해 방역방제기와 공동방제단을 총동원하여 소독에 철저를 기울이고 있다. 또한 축산차량 소독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1개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시에서는 닭과 오리 등 사육농가가 많은 읍면동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10월부터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그물망설치와 보수, 축사주변 생석회 도포, 축사 내·외부 소독 등을 실시를 권하고 가금류 방사 사육의 위험성을 농가에게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연계적으로 발생하는 조류독감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가에서는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관리하고 사육 가금류에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손에 손 맞잡고 '강강술래'

고창 모양성제성료... 거리퍼레이드 · 강강술래 · 답성놀이 등 큰 호응

고창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축제 '제45회 고창모양성제'의 대표 프로그램이며 가장 큰 볼거리 중 하나인 '강강술래'와 '답성놀이'가 화려하게 펼쳐졌다.

'고창모양성제'는 고창읍성 일원에서 다채로운 전통문화체험과 풍성하고 다양한 먹거리로 군민과 관광객들의 큰 호응 속에 연일 대성황을 이뤘다. 그중에서도 생활개선고창군연합회(회장 김숙자) 주관으로 열린 답성놀이와 강강술래 행사는 군민과 관광객들의 대표 체험행사로 볼거리와 참여기회를 늘려 진행됐다.

19일 낮에는 강강술래 재연 행사와 함께 축성참여고을과 안내 농협별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제3회 강강술래 경연대회'가 열렸으며 20일 야간에는 14개 읍면 주민과 관광객등 500여명이 곁게 한복을 차려입고 청사초롱을 들고 답성놀이에 참여해 성곽을 아름답게 수놓으며 큰 호응을 얻었다.

답성놀이 후에는 강강술래가 이어져 국악예술단 '고창(高唱)'의 선창에 따라 강강수월래 노래를 부르며 서로 손에 손을 맞잡고 원을 그리며 돌면서 남과 북이 하나 되길 염원하며 하나 된 모습을 연출해 장관을 이뤘다.

국내 유일의 답성놀이 재연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사진작가들도 가을 정취를 배경으로 한복과 민복을 차려입은 답성놀이 행렬과 강강술래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한편 '제45회 고창 모양성제'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고창읍성 일원에서 '역사는 미래다'를 주제로 펼쳐져 거리퍼레이드, 축성참여 고을기울림행사, 원님부임행사, 조선시대



제45회 고창모양성제에서 '답성놀이'가 화려하게 펼쳐졌다.

병영문화체험, 현대병영문화 체험, 태권 시연 및 경기, 모양성을 사수하라, 모양성 쌓기, 전통놀이체험, 한복·공중극상체험, 전통고전머리 체험, 전통시장과 연계한 모바일 스텝 프 투어 등 볼거리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로 호응을 얻었다.

/고창=김영식기자

제29회 정읍사문화제가 지난 19일 오전 채수례를 시작으로 막이 올라 21일까지 펼쳐졌다.

올해 주제는 '천년의 기다림, 가요와 사랑으로 물들다'이다. 개막식은 당일 오후 6시 정읍사 공연 특설무대에서 부도상(차영민씨, 정읍시 농소동) 시상식과 함께 시작되어 경관조명 점등식, 축하공연 등으로 펼쳐졌다. 행사 기간 전국 공모를 통해 참여한 40여 개 팀이 펼친 화려한 거리퍼레이드와 레이저와 서치라이를 한 3차원 조명기법으로 어느 해보다 화려했던 불꽃놀이인 '정읍사 리브 판타지 쇼'를 비롯 야간 체험형 프로그램인 LED소광풍선 날리기, '일루미네이션 포토존', '소원등 달기' 등이 인기를 모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민창안대회' 뿌리단계 최종발표회 가져

마을공동체 4개팀 · 창업공동체 10개팀 100여명 참석

정읍시(시장 유진섭)에서는 지난 18일 5층 대회의실에서 더 좋은 정읍만들기를 위한 '2018 정읍시민창안 대회' 뿌리단계 최종발표회를 가졌다.

마을공동체분야와 창업공동체분야로 나눠 진행된 최종발표회는 마을공동체 4개팀, 창업공동체10개팀 100여명이 참여하여 공동체 퍼포먼스를 펼치고 더불어 공동체상품을 전시했다. 영원면 북풍마을공동체를 시작으로 펼쳐진 발표 현장은 경쟁의 열기로 뜨거웠다. 이번 최종발표회를 통해 우수 공동체로 총 3개팀이 선정 되었다. 마을공동체 분야에서는 '동·서진공동체', 창업공동체분야에서는 '희망을 노래하는 쌀밭귀뚜라미'와 '지화지에 슬단'이 우수공동체로 선정되었다.

2012년부터 시작한 정읍시민창안대회는 시민들과 공동체의 아이디어를 직접 실현할 수 있도록 씨앗·뿌리·

줄기·열매 단계 등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금년까지 367개의 공동체가 발굴되었고 단계별 지원전략에 따라 열매단계 32개, 줄기 단계 50개, 뿌리단계 199개 팀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18년 정읍시민창안대회는 지난 1월 공모를 시작하여 씨앗단계 창안학교와 뿌리단계를 거쳐 공동체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유시장은 발표대회에 참여한 공동체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우리는 소통과 화합으로 공동체를 회복하여 활력 있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중한 시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정읍을 만들기 위한 공동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사문화제, 내년에 또 만나요'

올해 부도상 시상 · 화려한 거리퍼레이드 · 메이플스타 오디션 등

또 정읍천변 일원과 주 무대인 정읍사공원에 단풍나무와 구절초를 비롯 정읍사여인의 스토리를 더한 경관 조명이 설치돼 많은 이들의 발길을 잡았다. 뿐만 아니라 주요 이벤트인 메이플스타 오디션과 'KBS전국노래자랑', '2018 정읍사가요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진행됐다.

유진섭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행상 나간 남편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여인의 송고한 사랑을 담고 있는 백제 가요 '정읍사(井邑詞)'를 주제로 펼쳐지는 정읍사문화제가 천년의 부부 사랑을 보전 계승함은 물론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 나아가 시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정읍 만들기의 큰 힘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힘찬 황소들의 우직함에서 민족의 기상 만끽하다'

25일~29일까지 정읍 전국민속소싸움대회 열려

가을단풍의 명소인 정읍 내장산 자락에 위치한 내장산 문화관광장 옆에 마련된 특설 링에서 제 22회 정읍 전국민속소싸움대회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펼쳐진다.

금번 대회에는 정읍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170여두의 내로라하는 황소들이 참가해 총상금 7,660만원을 두고 771kg이상 백두급, 671kg이상 한강급, 670kg이하 태백급 등 3개 체급별로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우승상금은 백두급 600만원, 한강급 500만원, 태백급 400만원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단풍의 명소 내장산에서 22번째 맞이하는 전국민속소싸움대회가 개최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며 "우리의 소 한우는 민족의 삶과 애환을 함께 한 가족이자 소중한 자산으로 민속소싸움대회를 통해 힘찬 민족의 기상과 정열을 느끼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소싸움대회에서는 정읍 축산물을 다양하게 시식할 수 있는 정읍축산물축제도 개최된다. 행사장 인근에서는 한우 고기의 판매와 먹거리 장터도 운영된다.



한편 지난해 정읍 전국민속소싸움대회에는 전국에서 10만 명이상의 관람객이 찾은 바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참뽕 미용삼푸 개발 최종보고회... 화학성분 최소화

부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허남선)에서는 (주)나우코스(대표 노향선) 연구소와 함께 7월부터 부안참뽕삼푸 개발을 추진하여 지난 19일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선보인 부안참뽕 삼푸는 뽕잎 추출물 10%를 함유하고 미국 비영리 환경 시민단체에서 화장품 원료의 유해성을 표시하는 객관적인 성분 안전성 평가 등급인 EWG 그린 등급 삼푸로 화학성분을 최소화하고 아로마 오일로 향을 넣은 미산성 무실리온

천연푸드 제품으로 두피건강에 중점을 두면서 헤어보습과 윤기케어를 원하는 소비자를 위해 개발되었다.

참뽕그린삼푸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부안군 불려거단과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은 "두피와 모발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요즘 소비트렌드에 적합한 순한 제품으로 천연소재인 부안뽕잎을 이용하여 농가에게도 부안군 이미지 마케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걸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호 | 750ml 2ea, 2ea/16%

GIFT SET 2호 | 750ml 2ea, 1ea, 오프너/12%

GIFT SET 3호 | 750ml 1ea/12%

GIFT SET 4호 | 500ml 2ea, 2ea/12%

GIFT SET 5호 | 375ml 5ea/13%

GIFT SET 6호 | 500ml 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8960
www.gangsanwine.com